



이 동화가 재밌다

슈퍼 독 개구쟁이

2. 타일왕국 사수 대작전

글·그림 정용환
176쪽 | ISBN 978-89-6548-387-8(74810)
출간일 2019년 6월 4일 | 양장·변형판 140x202 | 연령 10세 이상 | 값 12,000원

제1회 「이 동화가 재밌다」 대상작 재치 칼칼 유머 빵빵! 신개념 동화 2탄!



아이들 눈을 한번에 사로잡은 책! - 블로그 Fox House

기발한 상상력에 기댄 이야기를, 글과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풍성한 볼거리로 엮어 낸 **참신한 형식의 콘텐츠**다. - 한겨레

만약 개들이 사람처럼 말도 하고, 서로 스마트폰으로 '톡'도 보낼 수 있다면?
상상이 잘 안 되는 재밌는 세상이 이 책에 다 담겼다. - 어린이조선일보

독창적이고 유머가 가득한 책이다.

다 읽고 나면 '재밌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신기한 책!

- 정윤아(장성초등학교 4학년)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주)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고릴라박스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이 동화가 재밌다」 대상작, 『슈퍼 독 개구쟁이 2. 타일왕국 사수 대작전』이 출간되었다.

1권 출간 직후 “아이가 2권 사달라고 조른다.” (Yes24 독자 music****), “아이 선물로 샀는데 온 가족이 읽고 깔깔했다.” (알라딘 독자 the****) 등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200쪽이라는 적지 않은 분량임에도 아이들이 흥미롭게 완독해, 독서의 재미를 알려 주는 책으로 입소문이 났다. ‘개가 세상의 주인이라면?’ 하는 기발한 상상력, 킁킁 웃음 터지게 하는 유쾌한 비유와 패러디, 깨알 재미가 넘치는 만화풍 그림으로 2권에서는 또 어떤 재밌는 모험을 펼칠까 한껏 기대감이 들게 만들었다.

이번 2탄에서 펼쳐질 개구쟁이의 모험은 스케일이 더욱 커졌다. 왕이 통치하는 개들의 나라 ‘타일왕국’으로 날아가, ‘왕위 계승식’을 둘러싼 음모와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그려 냈다. 화려한 왕실과 수많은 사원을 사랑하는 타일왕국 곳곳을 모험하는 재미, 쫓깃한 긴장감을 주는 대결 구도,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재치 가득 글과 그림에 독자들은 폭 빠지게 될 것이다.

작가 정용환은 1권 출간 후 1여 년을 공들여 '타일왕국'이라는 또 다른 개 세상을 창조해 냈다.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된 태국을 직접 취재해 이야기와 그림에 생생함을 더했고, 세심한 작화로 잔재미를 주는 장치들을 곳곳에 채워 넣었다.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매번 새롭고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어 아이들이 옆에 끼고 반복해 읽는 책이 되리라 기대한다.

재치와 유머를 키우고 싶다면? 기발한 상상력 끝판왕, 개꾸쟁의 모험 속으로!



개꾸쟁 삼총사에게 배달된 타일왕국 왕위 계승식 초대장.
이 왕위 계승식을 노리는 자가 있었으니…….
왕좌를 노리는 악당 쿠사, 그리고 그와 손잡은 핑거스!
과연 개꾸쟁 삼총사는 악당들에 맞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개가 사람처럼 말하고 걸으며, 학교에 다니고, 올림픽 아니 덩림픽을 열고…… 못하는 거 없이 다 하는, 그야말로 개들만의 세상. 해외여행이라고 빠질 리 없다! 개들의 해외여행은 어떤 모습일까? 다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새롭고 특별한 모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번에 개꾸쟁 삼총사가 떠난 곳은 바로 평화의 나라 타일왕국!

작가는 태국을 패러디해 타일왕국의 면면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재창조했다. 타일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 코끼리 똥. 이 나라 개들 역시 똥을 무척 사랑한다. 그냥 똥도 아니고 개 몸집만 한 코끼리 똥 더미라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매 음료로 코끼리 똥으로 만들어진 코끼리락이 인기다.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유명 사원엔 코끼리 신, 닭 신이 모셔 있고, 대표 유적인 쌍둥이 탑엔 매직 아이 그림이 숨겨 있다. 태국 대표 축제인 송크란 페스티벌은 개들의 물총 싸움 축제로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이야기의 설정과 작명에서는 재치가 톡톡 튀는다. 핑거스의 갑옷을 일회용 비닐장갑으로 만들고, 코끼리의 놀이는 그 동작을 본떠 코풍차, 코보잉, 코포알 등으로 이름 짓는 등 유머러스한 재치가 빛난다. 유명한 쌍둥이 신화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버림받은 왕자 쿤삼의 왕위 쟁탈 작전을 그린 점은 친숙하고도 재미나다. 이 같은 작가의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들을 흡수하면서 어린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재치 넘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기를 수 있다.

이 책의 또 하나 재미는 액티비티 활동. '미로 탈출하기' '숨은 꾸쟁이 찾기' 같은 각종 활동들을 이야기 중간 중간 소개하고 있어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평범한 강아지의 용기가 개 세상을 지킨다! 잔머리왕 개꾸쟁의 기똥찬 활약!

똥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천진함, 쉽게 감탄하는 초긍정 성격, 누구보다 재빠른 눈치, 개의 독인 초콜릿 맛을 귀신 같이 알아채는 재주…… 우리 곁의 친구처럼 친근한 꾸쟁이가 이번에는 더욱 깜짝 놀랄 활약을 보여 준다!

꾸쟁이는 마냥 신나 있다. 덩립픽 테러 사건 해결사로 한껏 자신감이 올라 있거니와, 그 공로로 세계 왕이나 대통령이나 되어야 참석할 수 있다는 타일왕국 왕위 계승식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거대한 코끼리 똥을 맛볼 생각에 잔뜩 들떠 타일왕국으로 향한 꾸쟁. 그런데 그곳에서 맞닥뜨린 상황이 그리 환상적이지 않은 않다. 꾸쟁이가 타일왕국으로 오게 된 것부터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핑거스의 계략이었던 것! 게다가 또 다른 악당 쿤사와 손잡아 타일왕국을 차지하려는 음모도 꾸미고 있다!

이 두 악당은 꾸쟁이 삼총사를 초콜릿 공격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잡아 가둔다. 이를 가엾게 여긴 악당의 딸 찰라똥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기는 하지만, 악당들의 음모를 알게 된 이상 꾸쟁이는 가만있을 수 없다. 잔머리왕답게 머리를 굴려 기발한 작전을 짜고 행동으로 옮긴다. 위기 상황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혼자만의 안전만 지키지 않고, 모든 개의 안전을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꾸쟁이를 보며 어린이들은 ‘용기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말에서 꾸쟁이의 마지막 작전은 압권이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 꾸쟁이와 함께 모험에 뛰어들어 이 통쾌한 쾌감을 만끽하시라!

[차례]

프롤로그

핑거스의 새로운 음모

가자! 타일왕국

탑에 숨은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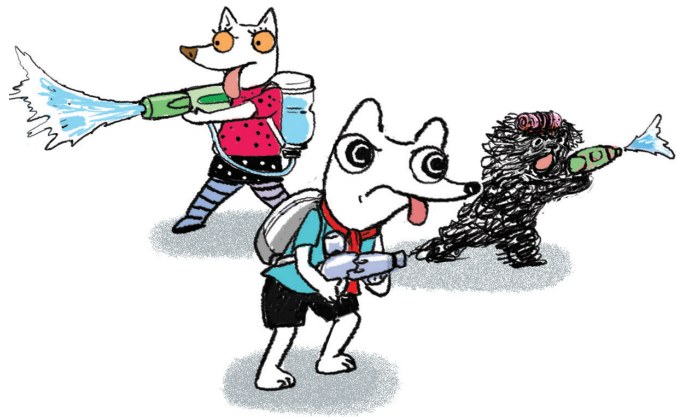
핑거스와 쿤사의 합동 작전

삼총사, 위기일발!

덧에 걸린 진짜 왕자

신화 속으로 뛰어든다!

난리 법석 정면 승부



● 작가 소개

지은이 정용환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무엇이든 끄적끄적 그리다가 결국 그림 작가가 되었다. 유머와 위트로 지식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그림책을 다수 작업했으며, 여러 동화책에 익살스러운 일러스트를 그려 왔다. 『슈퍼 독 개꾸쟁』으로 제1회 「이 동화가 재밌다」 대상을 수상했다. 그린 책으로 『복제인간 윤봉구 1, 2』, 『로봇 일레븐』, 『유튜브 스타 금은동』 등이 있다.